

# 대구주노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이민의 날  
2012.4.29.(나해) | 제1779호



## 금주의 성화

### 착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착한 목자이다.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양들의 이름을 불러 당신께 이끄시며, 양떼 가운데 어리고 약한 것은 품에 안고 돌보신다. 이 작품은 독일 태생의 종교화가 베른하르트 플록홀스트(1825~1907)의 유화 〈착한 목자〉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상단에는 독일어로 “나는 착한 목자이다.”라고 써어 있다. 플록홀스트의 〈착한 목자〉를 모사하거나 재구성한 작품이 매우 많지만 이 작품은 그 중에서도 타일로 만들어져 독특하다.

작자 · 연대 미상  
모르타르 위에 타일  
오스트리아 쿵스타인 중앙묘지 소장

## † 오늘의 전례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요한 10,11-18 참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당신을 아시고 당신께서 아버지를 아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얇은 죽음과 삶을 함께 나누는 것,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성인입교예식서).

제1독서 사도 4,8-12    제2독서 1요한 3,1-2    복음 요한 10,11-18  
화답송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또는 ◎ 알렐루야.)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딤시다 • 4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먼저 인사합니다.

# 똑똑한 것들은 자꾸 나가고 어리한 것들만 남아서...



이성호 세례자요한 신부 | 교구 성소 및 신학생복음화 담당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모든 이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사제성소나 수도성소로 불림 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느님의 이 부르심은 한 번 정해지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의 타고난 운명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과 나의 응답이라는 상호작용이 맞아 떨어질 때 그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것이고, 반대로 자기는 죽어라 사제가 되고 싶어도 하느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 여기 있습니다.”하고 끝까지 잘 응답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겠습니까? 방학을 마치고 신학교로 돌아왔을 때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은사 신부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똑똑한 것들은 자꾸 나가고 어리한 것들만 남아서...” 안 그래도 어리한 데 거기에도 대놓고 어리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듣기 싫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어리하다는 것이 진짜 어리함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똑똑함으로 앞날을 계획하고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슬기로운 자라고 칭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의 앞날에 도무지 개입하실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며 하느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내세우는 사람일

가능성이 큼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당신과 당신 나라에 관한 신비를 감추십니다.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마태 11,25)

사리를 분별할 지각이 없어 보이는 어리석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고 철부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당신 나라에 관한 계획을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길의 미래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고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그러했고,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은 마리아도 그러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시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고 당연히 어리석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이는 감당할 수도 없는 길을 나섰기에 하느님만 믿고 하느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며, 자기의 계획이나 뜻보다는 하느님의 생각과 뜻을 더 앞세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형제 여러분, 앞서 말한 그런 어리함을 가진 아이나 젊은이가 주변에 있다면 신학교와 수도원에 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권유해 주십시오. 아... 한 가지! 어리하지만 공부는 잘 해야 합니다.^^ 

## 이민과 새로운 복음화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교회 본연의 사명”입니다. 국경이 사라지고 세계화의 새로운 과정으로 개인과 민족들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1코린 9,16)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세계 이민의 날 주제는 “이민과 새로운 복음화”입니다. 이는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된 지역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교 전통을 지닌 나라들에서도 선교 활동을 강화하라는 요청입니다.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거나 박해, 전쟁, 폭력, 기아, 자연 재해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국내외 이주로 개인과 민족들이 전례 없이 뒤섞이게 되었고, 세속화가 초래한 뚜렷하고 현실적인 결과와 유사 종교의 출현,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만연한 무감각, 매우 분명한 분열의 경향이 “점점 더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는 세상에서 인류 형제자매들이 한 가족”을 이루도록 돕는 통합의 준거를 마련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때 교회는 이민들이 신앙을 확고히 간직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살든, 이국땅에 살더라도 거룩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이주 현상은 현대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민들 자신에게도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민들도

“하느님 말씀의 선포자가 되고 세상의 희망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 상황에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 사목 활동가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교를 위한 효율적인 사목을 이루려면, 이민들과 난민들을 돌보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난민 신청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개별 국가들과 국제 사회는 상호 수용의 자세를 지녀야 하고, 차별을 삼가야 합니다. 고통받는 지역들과 이미 수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지역들의 상호 도움이 필요하고 국가들 사이에 더 많은 책임 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가정을 수호하며 품위 있는 주거와 노동과 복지를 보장하는 새로운 계획들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학생들은 통합의 문제, 제도적 어려움, 주거와 환대 기구를 찾는 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문화적 성숙과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문화 간 대화를 증진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선포가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이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주도록 ‘길의 성모’이신 마리아의 전구를 간청합니다.

바티칸에서 2011년 9월 21일에  
교황 베네딕토 16세



### Q. 수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A. 남자 수도자는 수사, 여자 수도자는 수녀라고 부릅니다. 수사님들과 수녀님들은 예수님께서 몸소 지니셨고 또 권하신 가난과 순결과 순명의 덕행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하느님께 서원한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덕을 복음 삼덕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하늘나라의 성인들이 지니시는 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자들은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 주는 분들입니다.

## 성소, 하느님 사랑의 선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제49차 성소주일을 맞아, ‘성소, 하느님 사랑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완전한 선물의 원천은 사랑이신 하느님 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무에서 창조하시어 당신과 온전한 친교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 특히 모든 인간은 사랑이신 하느님의 생각과 행위의 열매입니다. 이 무한한 사랑은 거저 주시는 하느님 선물에 뿌리를 둔 사랑입니다.

사실 **모든 성소**는 하느님의 주도로 생겨납니다. **하느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삶은 하느님 ‘처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신을 선물로 내어 주는 온전한 자기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자기 봉헌의 토양 위에서 모든 성소가 태어나고 자랍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사제와 봉헌 생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고통 받는 사람들을 향한 이웃 사랑은 그들이 친교를 이루는 일꾼이 되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결정적인 원동력입니다.

저는 본당 공동체와 여러 교회 운동 단체들에 속한 이들 가운데 사제직이나 특별한 봉헌의 성소를 의식하고 있는 이들에게 더욱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간곡히 권고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 사랑의 부르심에 기꺼이 “예”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호의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경과 기도와 성찬례는 봉헌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 주는 소중한 보화입니다. 그 가운데 성찬례가 모든 성소 여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자체가 모든 성소를 담고 있는 하느님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하며, 무엇보다 가정은 성소의 일차적이고 가장 훌륭한 못자리가 됩니다.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아 ‘친교를 배우는 가정들’이 교회 안에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목자들과 모든 평신도들은 언제나 협력하여야 합니다.

바티칸에서 2011년 10월 18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 금주의 성인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5월 3일)

필립보 사도께서는 “나를 따라라.”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가 되시어 사도 나타나엘을 주님께 인도하셨습니다(요한 1,43-46). 알패오의 아들로 주님의 사촌이 되시며 야고보서를 쓰신 야고보 사도께서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와는 다른 분으로, 구별하기 위해 주님의 사촌 야고보 사도를 차(次)야고보, 또 다른 분을 장(丈)야고보

라고도 부릅니다. 두 분 사도께서는 같은 날 순교하지는 않으셨지만 로마의 열두 사도 대성당을 봉헌할 때 유해를 함께 안치했기 때문에 같은 날 축일을 지냅니다.

# 견진성사

## 견진성사 - 성령의 성사

견진성사는 주교님의 안수와 도유(성유를 바름)를 통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말과 행실로 신앙을 증거하게 하는 성사입니다. 견진성사는 본래 주교님이 집전하지만 유사시에 사제가 줄 수도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세례를 받고 나서 2~3년 후에, 신앙생활을 익히고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진 다음에 견진을 받게 됩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는 14세 전후에 견진을 받습니다. 견진성사를 받으면 세례와 마찬가지로 인호가 새겨집니다.

견진성사는 비유하자면 신앙인으로서 어른이 되는 성사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아이가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지만, 나이가 들면 스스로 제 할 일을 알아서 할 뿐 아니라 남을 도와줄 줄도 알게 됩니다. 이처럼 견진을 받는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몫을 감당하고 또 자신이 받은 신앙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책임과 능력을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 성령 칠은과 특별한 은사

주교님께서는 견진을 받는 사람의 이마에 크리스마 성유를 바르시면서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견진성사를 이루는 예식입니다. 성령께서는 세례 때처럼 견진

을 받는 신자에게 임하시어 일곱 가지 은혜(성령 칠은)를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은사도 주십니다. 성령칠은은 다음의 일곱 가지입니다.

1. 지혜(슬기):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해 주는 은혜입니다.
2. 깨달음(통달):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3. 의견(일깨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입니다.
4. 굳셈(용기): 유혹을 물리치고 신앙을 증거할 힘을 북돋아 주는 은혜입니다.
5. 지식(앎):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신앙 도리를 깊이 이해하는 은혜입니다.
6. 효경(반응): 하느님을 자녀다운 효심으로 사랑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7. 두려워함(경외 敬畏): 하느님의 엄위하심을 느끼고,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거나 하느님의 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사는 성령께서 공동체에 필요한 특별한 재능을 나누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형제자매들에게 봉사하라고 주시는 것이므로, 견진을 받은 신자는 섬기고 나누는 일에 앞장설 줄 알아야 합니다. **교리**

## 오늘의 미사 • 부활 제4주일

- 【입당성가】 18 주님을 부르던 날
- 【제1독서】 사도 4,8-12
- 【화답송】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또는 ◎ 알렐루야)
- 【제2독서】 1요한 3,1-2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봉헌성가】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 【복음】 요한 10,11-18
-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 【성체성가】 180 주님의 작은 그릇
- 【파견성가】 135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 † 성심복지의원 20주년 감사미사와 기념행사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소속 무료진료소인 성심복지의원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4월 22일(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내 가톨릭교육원 대강당에서 교구 사제, 신자,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로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기념행사를 가졌다. 성심복지의원은 전액 기부금과 의료진의 봉사로 운영되는 무료 병원이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월간 <빛>

## † 금주의 주요 교구 일정

- ▶ 2012년 5월 5일(토) 20:00, 성모당 성모성월 미사, 교구장 대주교님 주례
- ▶ 2012년 5월 6일(일) 11:00, 포항 죽도성당 견진
- ▶ 2012년 5월 6일(일) 15:00, 다문화가족 미사 - 계산주교좌성당, 교구장 대주교님 주례

## ■ 소중한 한마디를 들려주세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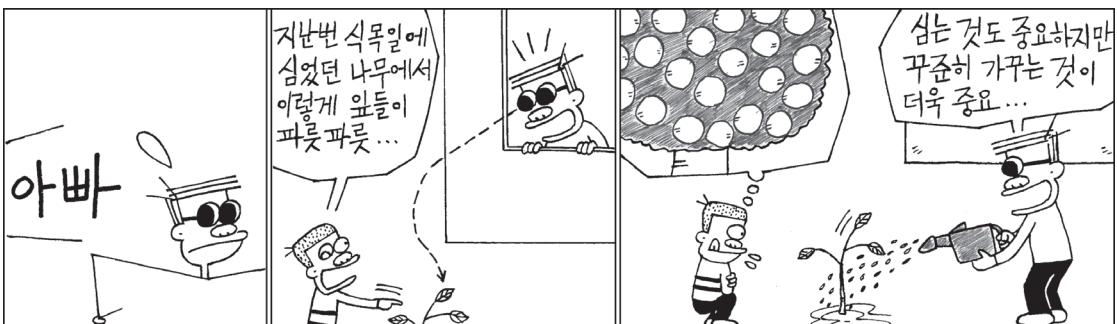
2012년부터 대구주보가 8면 컬러로 개편되었습니다. 더욱 세련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보를 만들기 위해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항목에 대한 소중한 한마디를 적어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1. 좋은 점    2. 나쁜 점    3. 주보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4. 기타 건의사항

- 메일: jubo@dgca.or.kr
- 우편: 700-443 대구시 중구 남산 3동 225-1번지 교구청 별관 403호 문화홍보실
- 주소와 소속 본당명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박성규 엘리지오



## 성소 / 피정

###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봄 피정

일시: 1차 5.12~13, 2차 6.9~10(토~일)

대상: 32세 미만의 미혼 여성

준비물: 성경, 필기구, 세면도구

회비: 1만 원

문의: 659-3404 / (010)3803-8973

###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성소모임

일시: 매달 첫째주일 13:00

장소: 대구 이곡동 수녀원

문의: 587-2898 / (010)2570-0939

• 성소상담 문의 언제나 가능

<http://www.fmmkor.org>

###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자 피정

일시: 5.6(일) 10:00~17:00

대상: 해외선교사제에 관심있는 젊은이

문의: 골롬반 성소국, (010)6818-3737

###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5.6(일) 11:00, 서울성북동본부

문의: (010)8752-3034

[kmsvocation@daum.net](mailto:kmsvocation@daum.net)

### 예수회 성소 피정

일시: 5.11(금)~13(일)

장소: 예수회센터

주제: 무엇을 찾느냐? (Jn1:38)

대상: 대학생, 35세이하 미혼남성

문의: (010)7197-7400, [vocsj@daum.net](mailto:vocsj@daum.net)

###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 (무료숙식)

일시: 5.11(금) 18:00~13(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

출발: 시민화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43)213-9103 / (010)4006-6482

## 모집 / 기타

### 월간 참소중한당신 8주년 사은특강

일시: 5.7(월) 14:00, 삼덕성당

5.21(월) 14:00, 김천황금성당

강사: 차동엽 신부

대상: 모든신자, 참소중한당신회원

문의: (031)986-7127~8

### 2012학년도 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입생모집(석사, 박사 과정)

접수기간: 4.30(월)~5.11(금)

문의: 850-3584, 3637(<http://www.cu.ac.kr>)

### 2012학년도 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모집

접수기간: 4.30(월)~5.11(금)

분야: 22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http://edu.cu.ac.kr> 모집요강 참조

### 연도선창자심화 상장예식보수교육

일시: 5.12(토) 단 1회

장소: 대가대 평생교육원 강당

대상: 상장예식 교육수료자, 일반교우

교육비: 4만 원 (식대, 교재 포함)

문의: 555-4448 / (010)4142-4414

### 2012학년도 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 신입생모집(석사과정, 야간, 2년제)

경영, 디자인, 신학, 보건과학대학원,

사회복지, 국제·다문화, 음악대학원

접수기간: 4.30(월)~5.11(금)

문의: 660-5512 (<http://www.cu.ac.kr>)

### 미디어 포럼 지도자 교육

기간: 5.18(주간 매주 금) 14:00~16:00

장소: 바오로딸 서원

내용: 미디어의 이해와 포럼 교육

회비: 10만 원(요일, 시간 조율가능)

문의: (010)2658-5185

###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모집

기간: 5.7(월)~25(금)

모집: 회화, 도시환경조각, 그리스도교미술,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전시디자인, 문화예술기획

문의: [www.iccu.ac.kr](http://www.iccu.ac.kr)

### 마신부님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초·중·고: 7.22~8.13(3주)

• 유럽 학생들과 함께 연수

대·일반: 6.25~8.6(6. 7주, 장기)

주관: 마신부님 (아일랜드골롬반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 미사 안내

|                    |                     |                 |
|--------------------|---------------------|-----------------|
| 5월 후원자 가정을 위한 월례미사 | 5월 2일(수) 오전 11시 30분 | 한국SOS어린이마을 내 성당 |
| 성모의 기사화 미사         | 5월 5일(토) 오전 10시     | 월배성당 내 수도원      |
| 푸른군대 첫 토요신심미사      | 5월 5일(토) 오전 11시     | 성모당             |

**전문과외**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언어, 논술

중·고·대(1~3년) · 재수생 · 초·중

◆ 서울권 대학  
◆ 과목별 전공자 수업

1:1 맞춤 방문수업 원장 주영혜(안젤라)

신뢰와 믿음의 서울교육원

**T. 256-6300**

39년 역사! 양산/우산의 名家

**세화양산**

각종 기념품 및 답례품  
대량 주문 및 소량주문 가능  
가톨릭 신자 우대

대표 김재훈(스테파노)

**☎ 053)956-1824 / 954-3712**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안심원이 함께합니다"

**교구 사회복지법인 안심원**

성가요양원 · 성가어르신복지센터

**입소 조건**

성가요양원(장기요양1,2,3등급/시설급여)  
성가어르신복지센터(장기요양1,2,3등급/시설,재가급여)

**입소 성가요양원 054)976-8122**  
**문의 성가어르신복지센터 054)976-8123**  
<http://www.sug.or.kr>

**무태골 가마솥 손두부 보쌈**

국내산 삼겹살, 가브리살로 만든 보쌈  
마늘소스의 마늘보쌈, 국내산 콩으로  
가마솥에서 끓여서 만든 두부...  
내 가족이 먹는 음식과 같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대표 김정자(마리아)

예약문의 **053)951-5353**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75

**백두정형외과**

어깨 관절경 수술전문

정형외과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백억두(아오스딩) 백성근(베드로)  
소아정형외과/신생아세부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배성영(미카엘라) [www.baekduos.com](http://www.baekduos.com)

**425-5919** 평일 09:00~19:00  
동인지앤센터 건너편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 재활 치료

**대우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평일: 09:00~17:30 토요일: 09:00~12:00  
위치: 대곡역사거리~대곡역그린빌 방향 500M

치질 · 치루 · 항문병 수술

**선일외과의원**

원장 · 전문의 : 배선익(사도요한)

**TEL : 745-6633~4**

지하철2호선 범어역 3번 출구, 수성못방향~300m

**Gong 공피부과**

각종 피부질환, 아토피, 여드름 흉터  
기미 및 레이저 클리닉 운영

**T. 053-710-0710** 피부과 전문의  
계명대 동신의료원 외래교수

팔달시장 옆 덕인빌딩 5층 원장  
(주차장 완비) 공수득 (가브리엘)

## TEL 743-4488 FAX 744-1594